

청소년 초기의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부산대학교 아동·소비자·주거학과

강사 김희화

교수 김경연

Dept. of Child · Consumer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Hee Hwa Kim

Prof. : Kyong Yun Kim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The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497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living at Pusan Korea.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multidimensional Self-Esteem Inventory, construct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the depression scale, and the life-satisfaction scal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was affected by the self-esteem related to home, peer, physical-appearance, and personality subdimensions. The importance of and the level of self-esteem about physical-appearance have an interactive effect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as affected by the self-esteem related to home, peer, physical-appearance, and academic-general areas.

I. 문제의 제기

청년기는 새로운 적응을 요하는 시기이다. 외모와 생리적 기능이 성인과 유사해지고 논리적·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또래와 부모 못지않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변화와 함께, 청소년들은 부

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나름의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우울, 불안, 비행, 생활만족도 등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짐(심희옥, 1997; Diener & Diener, 1995; 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Moore, Laflin, & Weis, 1996;

*본 논문은 1998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Rosenberg, 1985)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단일영역이 아니라 다영역으로 구성된다(김희화, 김경연, 1996; 최보가, 전귀연, 1993; Flerning & Courtney, 1984; Harter, 1982, 1985; Pope, McHale, & Craighead, 1988; 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영역중 어떤 영역이 청소년의 적응을 더 잘 설명해 주는지를 밝히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곽금주와 김근영, 1996, 1997)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행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다르게 보고됨으로써 적응에 필수적인 자아존중감 영역이 개인의 발달정도에 따라 다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급격한 신체적·성적 변화 및 심리적 변화에 직면한 청소년 초기의 적응에 중요한 자아존중감 영역 역시 궁금하나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적응에 대한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설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도 간과되고 있다. 첫째,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요도이다. 즉 개인이 자아존중감 각 영역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는가를 의미하는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중요도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즉 Marsh(1986) 그리고 Pelham과 Swann(1989)은 한 개인에게 중요시되는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때 전반적 자아가치도 높다고 제시하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경우, 적응도 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둘째, 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적응의 부정적 지표 및 긍정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 적응된 상태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좌절감이나 불안감없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되므로(이상로, 변찬진, 1969, 전귀연, 최보가, 1995에서 재인용), 심리적 불편정도를 파악하

는 부정적 적응 지표와 심리적 만족정도를 파악하는 긍정적 적응 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때 적응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적응을 측정함에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적응 지표 중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관성있게 보고되는 부정적 적응지표로써 우울과, 긍정적 적응 지표로써 생활만족도가 선정되어 자아존중감 각 영역과 적응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 영역 중 청소년 초기의 적응에 중요한 영역을 밝히고 또한 중요한 영역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 영역의 수준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수준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자아존중감과 우울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다영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 자아만을 측정할 수 있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과 다영역성을 고려하여 Harter(1988)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한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577명을 대상으로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 심희옥(1997)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밝혀주었으며, Rosenberg(1985)는 12세부터 10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여 실시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Kernis 등(1991)은 76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영향을 밝혀주었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 자아가 높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도 우울을 덜 느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다영역성을 지지하여 Harter(1988)의 다영역적 자아지각검사를 이용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우울의 영향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금주와 김근영(1997)은 인문계 고등학생과 비행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신체매력, 우정, 운동능력, 자기가치감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 Harter(1988)의 청소년용 자가지각검사를 사용하여 각 집단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영역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일반 청소년과 비행집단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자기 가치감,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영역으로 나타났고 비행 청소년의 경우는 신체매력 영역으로 나타났다. 박금주와 김근영(1996)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Harter(1986)의 대학생용 자가지각검사를 사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자아영역이 자기가치감, 지적능력, 우정, 부모관계, 이성관계, 유머임을 밝혔다.

2.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인간의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의미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한 요소로서 간주되는(Diener & Fujita, 1995; Diener, Sandvik, Pavor, & Fujita, 1992; Lipkus, Dalbert, & Siegler, 1996)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에서 전반적 자아 및 학업적 자아가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Emmons & Diener, 1985)도 개인의 다양한 인성특성, 즉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충동성, 외향

성, 불안, 및 자아존중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사회성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모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원, 자아존중감, 가족 자원, 대처 및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경신, 김오남, 1998)에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총인과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청년 및 성인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Diener와 Diener(1995)는 31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집단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는 정적인 관계임을 밝혀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임을 여러 연령층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문화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3. 자아존중감의 수준 및 중요도와 적응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다양한 자아 각 측면에 대한 자아존중감인 특정 자아와 전반적인 면에서 본 자아존중감인 전반적 자아로 구성되고 자아존중감이 특정 자아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점에 착안하여 전반적 자아의 결정요소로서 특정 자아의 중요도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기본전제는,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자아 영역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의 정도가 전반적 자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Harter와 Engstrom(1981)은 지각된 역량의 수준 및 중요도가 전반적 자아가치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극단적인 집단의 비교를 통해 보고하였다.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에 대한 역량지각의 순위와 중요성 판단의 순위가 똑같이 높은 집단과 역량지각의 순위와 중요성 판단의 순위가 정반대인 집단 중 일치한 집단의 전반적 자아가치의 수준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Pelham과 Swann(1989)은 전반적 자아 수준의 결정요소로서 특정자아의 영향이 그 영역의 중요도에 의존함을 밝히고 있으며,

Marsh(1986)는 전반적 자아의 영향요인으로서 각 특정자아의 수준이 그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상호작용하여 설명되는 경우는 특정자아의 영역 중 신체능력 자아나 정신적 자아영역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Marsh(1993)는 특정자아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차이가 있지만 각 특정자아 수준의 전반적 자아에 대한 영향은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보고된 특정자아의 수준이 전반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자아의 중요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관련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도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한편 특정 자아의 수준과 중요도의 상호작용으로 전반적 자아를 설명하려는 접근은 개인의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불일치 정도로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려는 접근과 공통된다(Harter, 1985, Leahy, 1985에서 재인용). 즉 어떤 자아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개인은 이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 자아 영역이 낮을 경우 개인의 전반적 자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특정자아의 수준과 중요도의 관계를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불일치의 크기로 보는 관점과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불일치의 크기가 부적응의 일차적 지수라고 본 Rogers와 Dymond(1954)의 주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 영역 중 어떤 영역에 대한 개인의 중요도는 높지만 실제 그 영역의 수준이 낮을 경우, 개인은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점은 간과되어 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부산시에 소재한 남녀 중학교에 재학하는 1, 2학년 청소년이며 표본은 임의 선

정된 부산시 3개구에 소재한 5개 중학교의 1, 2학년에서 무선집락표집방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수집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결과 최종 분석 대상자의 수는 497명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구성을 살펴보면 1학년은 236명(48%), 2학년은 261명(52%)이었고,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69명(54%), 여학생이 228명(46%)이었다.

2. 변인의 측정

1)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수준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화와 김경연(1996)이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보완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상세한 내용은 김희화, 1998 참조). 원 척도는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 전반적 자아 등의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척도의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 영역의 신뢰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 중 감정적 요소를 측정함에 있어 '기분이 좋다(나쁘다)'와 '만족한다'로 표현이 한정된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신뢰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 문항수를 보완하고 보완된 척도의 전체 49문항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표현하게 하여(예: 나는 공부를 잘해서 기분이 좋다 → 나는 공부를 잘해서 자랑스럽다) 재구성된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신뢰도 및 문항의 변별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영역은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 그리고 학업 및 전반적 자아등의 7개로 나타났다. 척도의 문항 변별도를 검증한 결과 χ^2 값이 모두 유의하고 Cramer의 V계수도 .46~.68로 만족스러웠다. 7개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6~.9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

어 있고 척도의 점수 범위는 49~245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2)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중요도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중요도는 7개의 자아존중감 영역을 동시에 제시한 후 응답자가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즉 첫 번째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평정된 자아존중감 영역에는 7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평정된 영역은 6점 등으로 순차 배점하여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평정된 자아존중감 영역의 중요도는 1점을 배점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중요도의 범위는 1점부터 7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2) 우울

우울은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곽금주, 문은영, 1993; 곽금주, 김근영, 1996, 1997; 김정민, 1992; 김정원, 1993; 심희옥, 1997) 개정 한국어판 역학적 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를 수정 구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에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적 목적보다 정상인의 우울수준 측정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1).

수정된 척도는 본 연구의 표본에게 응답하게 하여, 각 문항간 상관계수가 .25 이하로 나타난 3문항이 제외된 23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문항의 응답 범주는 그렇지 않았다(0점), 간혹 그랬다(1점), 자주 그랬다(2점), 거의 항상 그랬다(3점)의 0~3점 범위이며, 척도의 점수범위는 0~6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값이 .91로 나타났다.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 (1976)가 사용한 생활만족도의 측정 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문항의 응답범주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의 1~7점 범위이나,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함 성향에 따라 높은 점수로 편중될 가능성을 없애고자 응답 범주를 '만족하지 않음'부터 '매우 만족함'의 7점 범위로 수정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예비조사는 자아존중감 척도 각 문항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수집하고자 본 연구자가 1996년 11월에 부산시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2학년생 78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2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선정된 학급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담임교사에게 설문지 응답요령과 주의점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546부 이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결과 497부 이었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α 값을 검토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및 문항변별도 검사를 위해 χ^2 분석 및 Cramer의 V계수가 산출되었다.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수준 및 중요도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먼저 우울 또는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 각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우울 또는 생활만족도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자아존중감 영역에 한해서, 그 영역

의 수준과 중요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우울과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각 독립변인의 주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자 각 독립변인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주효과 검증을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역을 규명하고자 자아존중감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우울과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부정적 적응지표인 우울을 예측하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가정적

<표 1> 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 ²
우울 (N=436)	가정적 자아	-.25**	.35**
	친구관련자아	-.25**	
	성격적 자아	-.20**	
	신체외모자아	-.14*	
	신체능력자아	.07	
	학업 및 전반적 자아	-.03	
	교사관련자아	-.02	
생활만족도 (N=444)	가정적 자아	.44**	.47**
	친구관련자아	.15**	
	신체외모자아	.15**	
	학업 및 전반적 자아	.14*	
	신체능력자아	-.07	
	성격적 자아	.03	
	교사관련자아	.03	

*p<.01, **p<.001

자아($\beta = -.25, p < .001$), 친구관련 자아($\beta = -.25, p < .001$), 성격적 자아($\beta = -.20, p < .001$) 및 신체외모 자아($\beta = -.14, p < .01$)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이 우울 총 변량의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능력 자아, 학업 및 전반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의 우울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지표인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가정적 자아($\beta = .44, p < .001$), 친구관련 자아($\beta = .15, p < .001$), 신체외모 자아($\beta = .15, p < .001$)와 학업 및 전반적 자아($\beta = .14, p < .01$)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이 생활만족도 총 변량의 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는 적응의 부정적 지표인 우울과 긍정적 지표인 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격적 자아는 우울에, 학업 및 전반적 자아는 생활만족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신체능력 자아와 교사관련 자아는 청소년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적 자아의 정도에 따라 우울은 영향을 받지만 생활만족도는 무관하며, 학업 및 전반적 자아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영향을 받으나 우울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2. 적응에 대한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수준 및 중요도의 상호작용효과

자아존중감 수준의 적응에 대한 영향이 그 영역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해 각 적응지표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 영역에 한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자아존중감 수준 및 중요도 상집단과 하집단은 각 자아존중감 영역의 수준 및 중요도 평정치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표 2〉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수준 및 중요도에 따른 우울의 이원변량분석

자아존중감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가정적자아 (N=451)	수준(A)	6894.59	1	6894.59	65.73**
	중요도(B)	458.71	1	458.71	4.37*
	A * B	43.92	1	43.92	.41
	오차	46888.68	447	104.90	
친구관련자아 (N=457)	수준(A)	5172.35	1	5172.35	48.43**
	중요도(B)	26.78	1	26.78	.25
	A * B	40.13	1	40.13	.38
	오차	48376.17	453	106.79	
성격적 자아 (N=459)	수준(A)	3405.38	1	3405.38	29.99**
	중요도(B)	131.90	1	131.90	1.16
	A * B	320.68	1	320.68	2.82
	오차	51665.03	455	113.55	
신체외모자아 (N=461)	수준(A)	5443.10	1	5443.10	51.05**
	중요도(B)	1180.18	1	1180.18	11.07**
	A * B	685.93	1	685.93	6.43*
	오차	48727.24	457	106.62	

*p<.05, **p<.001

1) 우울에 대한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수준 및 중요도의 상호작용효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자아존중감 영역의 수준과 중요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를 자아존중감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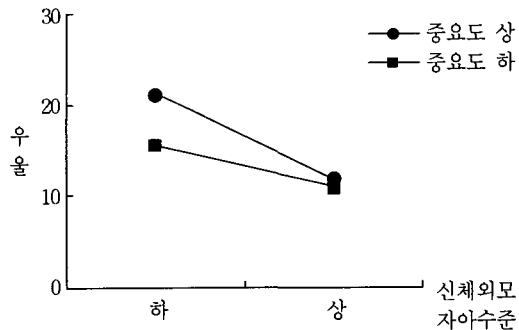
가정적 자아의 경우, 수준(F=65.73, p<.001) 및 중요도(F=4.37, p<.05)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나 수준과 중요도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정적 자아의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우울하고, 가정적 자아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 자아의 경우, 수준(F=48.43, p<.001)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나 중요도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 및 수준과 중요도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친구관련 자아의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적 자아의 경우, 수준(F=29.99, p<.001)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나 중요도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 및 수준 및 중요도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성격적 자아의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 자아의 경우, 수준(F=51.05, p<.001) 및 중요도(F=11.07, p<.001)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고 수준과 중요도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F=6.43, p<.05)도 유의하였다. 즉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우울하고,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중요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 자아 수준과 중요도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신체외모 자아 수준이 낮은 경우 중요도에 따라 우울의 차이는 있지만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이 높을 경우 중요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그림 1〉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 및 중요도의 상호작용효과

외모 자아의 수준이 낮은 경우,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집단의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외모 자아 수준의 우울에 대한 영향은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에 대한 신체외모 자아 수준의 주효과 즉 신체외모 자아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우울을 더 느낀다는 해석과 부분적

으로 상치된다. 그런데 연구문제 2의 초점이 상호작용효과이므로 우울에 대한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과 중요도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우울에 대한 신체외모 자아 수준의 효과는 신체외모 자아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수준 및 중요도의 상호작용효과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중요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결과를 자아존중감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적 자아의 경우, 수준($F=132.93, p<.001$) 및 중요도($F=10.25, p<.01$)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나 수준과 중요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정적 자아의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그리고 중요도도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수준 및 중요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이원변량분석

자아존중감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가정적자아 (N=451)	수준(A)	196.19	1	196.19	132.93**
	중요도(B)	15.12	1	15.12	10.25*
	A * B	3.44	1	3.44	2.33
	오차	672.99	456	1.48	
친구관련자아 (N=457)	수준(A)	122.48	1	122.48	66.85**
	중요도(B)	3.10	1	3.10	1.84
	A * B	1.22	1	1.22	.67
	오차	780.69	464	24.27	
신체외모자아 (N=459)	수준(A)	122.64	1	122.64	73.76**
	중요도(B)	18.25	1	18.25	11.00*
	A * B	5.46	1	5.46	3.28
	오차	778.12	468	1.66	
학업 및 전반적자아 (N=461)	수준(A)	141.46	1	141.46	84.40**
	중요도(B)	1.13	1	1.13	.68
	A * B	1.34	1	1.34	.80
	오차	772.67	461	1.97	

* $p<.01$, ** $p<.001$

친구관련 자아의 경우, 수준($F=66.85, p<.001$)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나 중요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효과 및 수준과 중요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친구관련 자아의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 자아의 경우, 수준($F=73.76, p<.001$) 및 중요도($F=11.00, p<.01$)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나 수준과 중요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그리고 중요도는 높을 때 보다는 낮을 때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및 전반적 자아의 경우, 수준($F=84.40, p<.001$)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나 중요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효과 및 수준과 중요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학업 및 전반적 자아의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 및 적응에 대한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중요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적응지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을 할 경우, 자아존중감 영역에 따라 수준뿐만 아니라 중요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그리고 성격적 자아이지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그리고 학업 및 전반적 자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체외모 자아의 우울에 대한 영향은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과 중요도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이 높을 경우 중요도에 따라 우울의 차이는 없지만 신체외모 자아 수준이 낮은 경우 중요도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자아존중감의 다영역성을 감안하여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수준 및 중요도가 적응 지표인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울에 대해서는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성격적 자아의 수준이 주효과를 가지며 신체외모 자아의 경우 수준의 주효과 및 수준과 중요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그리고 학업 및 전반적 자아의 수준이 유의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흥미를 끄는 사실은 적응지표 중 부정적 지표인 우울과 긍정적 지표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즉 자아존중감 영역 중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가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성격적 자아가 우울에, 그리고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 적응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관여하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다를 수 시사하는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의 영역 중 가정적 자아와 친구관련 자아가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영역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나 또래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청소년의 적응에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제시해 준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 동안 지원자로서의 부모관계와 동등한 관계로서의 친구관계 모두가 중요하다(Eccles, Buchanan, Midgley, Fuligni, & Flanagan, 1991)는 주장과 일치한다.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 역시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밝혀진 것은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과 중요도가 우울에 대해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나타난 결과에서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설명할 때 다른 자아존중감 영역의 경우는 수준으로만 설명할 수 있지만 신체외

모 자아의 경우는 수준과 중요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단지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수준이 낮으면서 신체외모를 중시하는 청소년의 경우만 우울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청소년일지라도 외모를 덜 중요하게 여기면 적응을 잘해 나갈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외모에 대해 열등감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면서 다른 긍정적 자아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적응을 도와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격적 자아는 우울에만, 그리고 학업 및 전반적 자아는 생활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격적 자아가 낮으면 우울하지만 성격적 자아가 높다고 하여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은 아니며 또한 학업 및 전반적 자아의 수준이 높을 경우 생활만족도는 높지만 그 영역이 낮다고 하여 우울한 것은 아님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영역 중 가정적 자아, 친구 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는 청소년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 두 적응지표에 영향을 미치며, 성격적 자아는 우울에 그리고 학업 및 전반적 자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울에 대해 신체외모 자아의 수준과 신체외모 자아의 중요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다. 즉 신체외모자아의 수준이 낮으면서 이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사람이 우울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의 적응을 설명하고자 자아존중감의 영역별 접근을 취하고 자아존중감의 수준 이외에 자아존중감의 중요도 변인을 고려하여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반적 자아존중감의 수준에만 한정하여 적응을 설명한 기존의 입장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공한 점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개인의 적응을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청소년 초기의 사회적 적응이나 비행 등의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광금주·김근영(1996).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I): 대학생의 우울 및 자기상과 관련하여. *인간발달연구*, 3(1), 1-14.
- 2) _____(1997).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II):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26.
- 3) 광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4) 김정신·김오남(1998).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대안가정학회지*, 36(2), 19-34.
- 5) 김정민(1993).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정원(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희화·김경연(1996).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발. *대안가정학회지*, 34(5), 1-12.
- 8)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아동학회지*, 18(1), 39-52.
- 10) 전귀연·최보가(1995). 가족 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33(1), 83-97.
- 11)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1). *대안가정학회지*, 31(2), 41-53.
- 12)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13) Diener, E., & Fujita, F.(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68(5), 926-935.
- 14) Diener, E., Sandvik, E., Pavor, W., & Fujita, F.(1992). Extraver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U. S. national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205-215.
 - 15) Eccles, J. E., Buchanan, C. M., Midgley, C., Fuligni, A. J., & Flanagan, C.(1991). Individuation reconsidered: Autonomy and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47, 53-68.
 - 16) Emmons, R. A., & Diener, E.(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1), 89-97.
 - 17) Fleming, J. S., & Courtney, B. E.(1984). The dimensiona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2), 404-421.
 - 18)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19)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20) Harter, S., & Engstrom, R.(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ce of success, perceived competence,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21) Kernis, M. H., Grannemann, B. D., & Mathis, L. C.(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 81-84.
 - 22)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versus for other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7), 666-677.
 - 23) Marsh, H. W.(1986). Global self-esteem: Its relation to specific facets of self-concept and their impor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44-1236.
 - 24) Marsh, H. W.(1993). Relations between global and specific domains of sel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importance, certainty, and ide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975-992.
 - 25) Moore, S., Laffin, M. T., & Weis, D. L.(1996). The role of cultural norms in the self-esteem and drug use relationship. *Adolescence*, 31(123), 523-542.
 - 26) Owens, T. J.(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 27) Pelham, B. W., & Swann, Jr., W. B.(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72-680.
 - 28) Pope, A. W., McHale, S.M., & Craighead, W. E.(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 29) Rogers, C. R., & Dymond, R.(1954).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0) Rosenberg, M.(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pp. 205-246).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31)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 32)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 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